

서울 아트하우스 모모

10월 28일(화) - 11월 3일(월)

부산 영화의전당

10월 30일(목) - 11월 4일(화)

인천 영화공간 주안

11월 6일(목) - 11월 9일(일)

대구 CGV 대구아카데미

11월 7일(금) - 11월 9일(일)

주최

주한스웨덴대사관
스웨덴대외홍보처
스웨덴영화진흥원

주관

(주)영화사 백두대간
(재)영화의전당
영화공간주안
해대구 스웨덴영예영사관

후원

한국스웨덴문화예술협회

14

제14회 스웨덴영화제

THE 14TH SWEDISH FILM FESTIVAL

Embassy of Sweden
Seoul

SI. Swedish
Institute

Swedish
Film Institute

서울 아트하우스 모모

10월 28일(화) - 11월 3일(월)

부산 영화의전당

10월 30일(목) - 11월 4일(화)

인천 영화공간 주안

11월 6일(목) - 11월 9일(일)

대구 CGV 대구아카데미

11월 7일(금) - 11월 9일(일)

주최

주한스웨덴대사관
스웨덴대외홍보처
스웨덴영화진흥원

주관

(주)영화사 백두대간
(재)영화의전당
영화공간주안
재대구 스웨덴영예영사관

후원

한국스웨덴문화예술협회

www.swedishfilmfestival.com



제14회 스웨덴영화제

THE 14TH SWEDISH FILM FESTIVAL





칼-울프 안데르손
주한스웨덴대사

제14회 스웨덴영화제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한국에 부임한 이후 두 번째로 맞이하는 이번 스웨덴영화제를 통해, 스웨덴 영화의 깊이와 다양성을 한국 관객 여러분과 나눌 수 있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스웨덴과 한국은 영화가 단순한 오락을 넘어, 사회를 비추고 사람들을 이어주는 문화적 언어라고 믿습니다. 스웨덴 영화는 섬세한 내면의 성찰과 조용한 깊이로 사랑받고 있으며, 한국 영화는 대담한 열정과 상상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미학을 지니고 있지만, 두 나라는 경계를 넘어 이야기를 전하고 문화를 잇는 대화를 만들어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올해 프로그램은 이러한 정신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개막작 <노바와 엘리스>는 엠마 부흐트 감독과 요한 레보리 배우가 직접 한국을 찾아 서울과 부산에서 관객들과 만납니다. 또한 스웨덴영화방송프로듀서협회 요한 홀메르 회장과 안 블롬그렌 프로듀서의 방문은 스웨덴과 한국 영화 산업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토마스 알프레드손 감독의 신작 시리즈 <페이스리스>와, 잉마르 베리만이 각본을 쓰고 리브 울만이 연출한 영화 <트로로사>를 함께 상영함으로써, 세대를 잇는 스웨덴 영화의 흐름과 그 재해석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주목할 만한 인물들의 삶을 조명한 작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다그 함마르셀드를 그린 <함마르셀드: 평화를 위한 여정>, 선구적 수영 선수 살리 바우에르를 다룬 <스웨덴 토피도>, 추상화의 개척자 힐마 아프 클린트를 재조명한 <힐마>가 상영됩니다. 또한 가족과 존엄을 성찰하는 감동적인 작품 <우리의 마지막 여행>, 여성의 목소리와 해방을 강렬하게 그려낸 마이 제틸링의 고전 <더 걸즈>도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웨덴영화제는 스웨덴 영화를 기념하는 동시에 미래를 향한 창의적 교류의 장입니다. 양국이 공유하는 문화적 기반 위에서 영화인과 관객, 그리고 영화 산업이 서로 배우고 협력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기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스웨덴영화제를 가능하게 해주신 한국스웨덴문화예술협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스웨덴 영화를 감상하고, 스웨덴 문화와 가치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제14회 스웨덴영화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상균
한국스웨덴문화예술협회 회장

제14회 스웨덴영화제의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한서문화예술협회를 대표해 따뜻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스웨덴영화제는 단순히 영화를 상영하는 자리를 넘어, 스웨덴의 문화와 가치, 그리고 예술적 감수성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축제입니다. 스웨덴 영화가 보여주는 독창적인 시선과 따뜻한 인간애는 한국 관객들에게도 늘 깊은 울림을 전해왔습니다.

올해 상영작들은 사랑과 성장의 이야기에서부터 역사와 예술을 성찰하게 하는 작품까지 폭넓은 주제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특히 개막작 <노바와 엘리스>는 음악을 매개로 서로 다른 두 인물이 부딪히고 변화해 가는 과정을 섬세하게 그리고 있어, 관계와 공감의 의미를 새롭게 생각하게 하리라 기대합니다. 함께 소개될 훌륭한 작품들을 통해 스웨덴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게 될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이번 영화제가 단순한 문화 향유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화라는 매개체를 통해 우리는 타인의 이야기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넓은 세상과 이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K-문화(K-Culture)는 세계인에게 큰 사랑을 받으며 한국을 새롭게 이해하는 소통의 창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과 스웨덴의 문화예술 교류가 한층 활발해지고 있는 지금, 그 여정에 협회가 동행할 수 있음이 큰 기쁨입니다. 한국스웨덴문화예술협회는 앞으로도 양국의 교류를 위해 꾸준히 힘쓰며, 새로운 세대가 더 넓은 세계와 만나는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이 자리를 위해 애써 주신 주한스웨덴대사관, 그리고 준비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정성과 헌신 덕분에 오늘과 같은 뜻깊은 축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스웨덴영화제가 두 나라의 우정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관객 여러분께는 영화 속 이야기에서 새로운 감동과 영감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과 스웨덴이 앞으로 함께 만들어 갈 더 밝은 미래를 기대하며, 이번 영화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따뜻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영화를 통해 되살아나는 과거, 다시 만나는 역사

제14회 스웨덴영화제 8편의 상영작

올해로 14회를 맞은 스웨덴영화제는 그간 국내 영화 관객들에게 최신의, 최고의 스웨덴 영화를 꾸준히 소개하고 스웨덴 영화의 빛나는 성취를 전하는 데 주력해 왔다. 이를 통해 스웨덴의 창의적인 영화인들의 잠정적 현재를 가능하고, 그들이 관심 두고 있는 영화적 주제, 형식, 미학을 얼마간 짐작하며, 스웨덴 사회를 비롯한 주변 국가가 당면한 사회적 의제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스웨덴영화제는 정치, 사회, 문화적 소수자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큰 환대를 보여온 스웨덴의 오랜 전통을 적극적으로 끌어안으며, 바로 그 관용에서 비롯된 품위가 스웨덴 영화의 바탕을 이루고 있음을 재차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기도 하다. 올해의 상영작들은 그 어느 때보다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사건이나 인물, 당대에는 잘 주목받지 못했지만, 세계사적으로 의미 있는 흔적을 남긴 이들을 주목하는 작품이 많다. 과거를 잘 이해하고 기억할 때, 과거와 잘 작별할 때, 그때야말로 현재와 미래를 더 너른 시선으로 조망할 수 있음을 전해오는 성찰의 영화들이다. 역사 드라마, 전기영화, 인물 다큐멘터리, 러브스토리 등 각기 다른 장르와 형식의 8편의 작품을 엄선했다. 이 흥미로운 창작물들이 스웨덴영화제를 찾는 관객에게 특별한 시간 여행을 선사하길, 그 여정의 길잡이가 되길 기대한다.

개막작 〈노바와 엘리스〉, 스웨덴의 여름을 물들일 사랑 노래

올해 스웨덴영화제의 개막작은 엠마 부흐트 감독의 로맨스 음악 영화 〈노바와 엘리스〉(2024)이다. 성격도, 성향도, 음악적 취향도, 삶의 지향도 달라도 너무 다른 두 여성 아티스트 노바와 엘리스. 노바는 독특한 개성을 보이는 신인 뮤지션으로 인기몰이 중이고, 엘리스는 경력이 출중하고 대중성을 갖춘 실력파 음악인이다. 이들이 매니저의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함께 음악 공연 투어에 오른다. 상극인 두 사람이 동행하니, 충돌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어느 정도 예견된 갈등 양상과 국면이 그려지지만, 〈노바와 엘리스〉는 예상を 깨고 색다른 방향으로 흘러 나간다. 갈등의 상대가 애정 어린 대상으로 변모하는 지점을 섬세하게 그려가자, 이 영화를 혼돈의 러브스토리, 성장담으로 달리 읽어보게 만든다. 기



정지혜
영화평론가

존의 가족 질서, 사회적 관계, 정체성을 흔들며 내면의 파고를 겪는 여성들의 흥겹고도 뼈아프며 뜨거운 여름날이다.

실존 인물들의 치열한 생애가 바로 눈앞에

상영작 중 실존 인물의 실화에 바탕한 영화들이 꽤 많다. 먼저, 프리다 켐프의 〈스웨덴 토피도〉(2024)다. 1930년대 후반,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 전운이 감도는 시대를 배경으로 스웨덴의 전설적인 여성 수영 선수 살리 바우에르가 망망대해를 마주하고 섰다. 살리는 1939년 영국 해협을 수영해 건너간 것으로 유명한 전설적인 인물로 영화를 통해 동시대 관객과 만난다. 영화는 여성에게 훨씬 가혹했던 시대적 분위기 아래, 한 여성의 복잡다단한 내면의 분투를 그린다. 어린 아들 라스를 홀로 키우며 겪는 곤경, 언니 칼라와의 갈등과 자매애, 경제적 어려움 등을 다면적으로 풀어내며 인물을 깊이 있게 이해하게 만든다. 강직하고 굳건하며, 투박하고 꾸밈없는 살리의 모습 속에서 한계와 난관을 정면으로 돌파해 나가는 강인한 여성상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프리다 켐프 감독은 제11회 스웨덴영화제 때 여성의 내밀한 불안과 공포를 그린 미스터리 심리극 〈노크〉(2021)를 상영한 바 있다. 비가시화돼 온 여성들의 존재를 전면화하는 작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창작자다.

두 번째는 페르 플라이 감독의 〈함마르셀드: 평화를 위한 여정〉(2023)이다. 냉전 시대, 제2대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스웨덴의 외무부 장관 출신의 다그 함마르셀드가 영화의 주인공이다. 그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 평화 유지 활동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이례적으로 사후 노벨 평화상을 받은 역사적 인물이기도 하다. 영화는 그가 유엔군을 이끌고 전시 작전에 투입된 후 적과의 휴전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비행기에 오르는 이야기를 중심에 두고 풀어간다. 아카이브 영상을 얼마간 결합하며 엄숙한 시대의 강도를 전한다. 거대한 역사 앞에 서야 했던 한 인간, 그가 감당해야 했을 무거운 책임감과 내적 고뇌가 고스란히 전해지는 전기 드라마다.

세 번째로는 세계 최초의 추상 예술가로 잘 알려진 스웨덴의 여성 작가 힐마 아프 클린트

에 관한 전기영화 <힐마>(2022)다. 흔히 추상 미술이라고 하면 바실리 칸딘스키를 떠올리곤 하지만, 그보다 5년이나 앞서 추상화를 그리기 시작한 인물이 바로 힐마다. 20세기 초, 미술계에서 여성 작가를 만나기란 좀처럼 어려운 일이었고, 추상화를 그리는 여성은 더 더욱 흔치 않았다. 그런 작가가 존재한다고 해도 자칫 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거나 신비화되기 일쑤였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힐마는 곳곳하게 창작을 이어가고 자신만의 예술을 꽃피운다. 영화는 그런 힐마의 사유와 철학을 그린다. 국내 관객에게는 로맨스물인 <초콜렛>(2000) 등으로 잘 알려진 라세 할스트룀 감독이 연출했다. 젊은 시절의 힐마는 감독의 딸인 토라 할스트룀이, 나이 든 힐마는 그의 아내인 레나 올린이 연기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제12회 스웨덴영화제 상영작이기도 했던 <힐마>는 올해 7월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 부산현대미술관에서 열린 <힐마 아프 클린트: 적절한 소환> 전시 이후, 상영으로 다시 만나기에 그 의미가 더 깊다.

되살아나는 스웨덴의 고전들

스웨덴의 고전 영화, 스웨덴 영화사를 대표하는 감독과 배우들의 작품을 새로이 만난다. 먼저 말해야 할 작품은 배우 겸 감독인 마이 제털링이 연출한 <더 겔즈>(1968)다. 극단에서 연기하는 세 명의 여성 배우가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 <리시스트라타>의 공연을 위해 유랑을 떠난다. ‘여성의 평화’를 뜻하는 이 희극은 굉장히 대담하고 전위적인 여성 서사로 남성들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참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성들이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내용이 아니던가. 전쟁, 성, 권력을 둘러싼 여성들의 담대한 저항의 움직임은 엿볼 수 있는 텍스트로서 오랫동안 페미니스트들의 참고 자료가 돼 왔다. 여성의 주체성을 드러내는 내용에 더해 영화 속 세 배우는 잉마르 베리만의 영화로 잘 알려진 비비 안데르손, 해리엇 안데르손, 군넬 린드블롬이다. 영화는 이 막강한 매력의 배우들과 함께 연극 무대와 현실 세계를 오고 가며 전위적이고 도발적인 환상 극을 펼쳐낸다.

잉마르 베리만이라는 자장 아래 있는 또 다른 작품들이 있다. 하나는 영화이고, 다른 하나는 TV 시리즈물이다. 먼저, 배우이자 감독인 리브 올만이 연출한 영화 <트로로사>(2000)이다. 잉마르 베리만이 각본을 쓴 작품이라 더 잘 알려져 있다. 연극 배우 마리안과 지휘자 마르쿠스. 이들 부부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직업적 성취와 안정적 가정을 꾸리고 살아간다. 이 안락과 평화는 그들의 오랜 친구이자 영화감독 다비드가 부부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만 가능하다. 삼각관계, 사랑과 배신, 비밀과 거짓말이 부른 치정과 파국의 드라마다. 이 영화로 마리안 역의 레나 앤드레는 스웨덴 영화를 대표하는 스웨덴 아카데미 시상식이라 불리는 굴드바게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을 거머쥐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 <트로로사>는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되고 새로운 플랫폼으로 부활한다. 바로 <렛 미 인>(2008), <팅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2011) 등으로도 세계적인 명성을 얻는 토마스 알프레드손 감독의 신작으로 노르웨이의 영화감독 사라 윤센이 각본을 맡은 <페이스 리스>이다. TV 시리즈로 구성됐고 지난해부터 6개의 에피소드를 공개하며 시즌1을 마무

리했다. 구성면에서 특이하다. 현재와 과거의 시간대를 오고 가며 마리안, 마르쿠스, 다비드의 지난날과 현재가 교차하고,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아픔과 악몽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극의 긴장감을 극대화했다는 평가다. 토마스 알프레드손의 스타일리쉬한 손길로 한층 더 감각적이고 매끈해졌다.

나이 듦, 돌봄이라는 주제를 돌아보게 하는 다큐멘터리

마지막으로 소개할 영화는 올해의 상영작 중 유일한 다큐멘터리인 필립 함마르와 프레드릭 비킹슨 감독의 공동 연출작 <우리의 마지막 여행>(2004)이다. 감독 필립은 한 때 활기가 넘쳤지만, 은퇴 이후 우울감에 시달리고 무기력해진 아버지 라스를 걱정하며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을지 궁리하고 모색한다. 그리고, 결심한다.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가 사랑하는 프랑스로 여행을 떠나기로. 어쩌면 아버지와 함께 하는 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여행이다. 여기에 필립의 친구이자 그의 오랜 영화 동료이며 이 영화의 또 다른 연출자인 프레드릭까지 가세했다. 길 위에서 이들 부자는 서로가 낯설기도 하고, 서로에게 실망하기도 하겠지만, 그보다 더 깊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순간들을 아로새긴다. 지극히 사적인 부자의 사연을 통해 나이 듦, 돌봄, 삶과 죽음, 인간적 존엄이라는 실존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이자 지극히 현실적인 물음을 던지게 한다. 절묘한 구성, 완성도 높은 촬영, 감성을 자극하는 음악이 몰입감을 한껏 끌어올리며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다.

제 14회
스웨덴영화제

상영작 소개

자막 본 영화제의 모든 상영작은 스웨덴어를 기본 언어로 상영되며, 한국어 자막이 함께 제공됩니다.

등급 **G** 전체관람가
12 12세 관람가
15 15세이상 관람가
18 18세이상 관람가

The 14th
SWEDISH FILM FESTIVAL

14



“환상적인 여름이 우릴 기다리고 있어”

노바와 앨리스

Nova & Alice

2024 / 컬러 / 110분

성소수자, 가족, 음악, 드라마 **15** 개막작

언어 스웨덴어
각본 요나 볼린 쿨베리
벵트 브라스케레드
출연 헤다 회른스테트
요세핀 아스플룬드
요한 레보리
제작 StellaNova Film

전혀 다른 개성의 두 아티스트가 매니저의 결정으로 함께 투어를 떠나게 된다. 오랜 경력을 지닌 베테랑 아티스트 앨리스는 점차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고, 떠오르는 신예 노바는 혼란스러운 사생활로 마음이 어지럽다. 음악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충돌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여름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은, 그들 누구도 아직 알지 못한다.



감독 엠마 부흐트

연극계에서 노련한 연출가인 엠마 부흐트는 〈브로드웨이를 쏘라〉, 〈오베라는 남자〉, 〈레인 맨〉 등 많은 작품들을 연출했습니다. 또한 TV 분야에서도 〈버려진 소녀의 일기〉(2025), 〈러브 앤 아나키〉(2000), 〈보너스 패밀리〉(2017) 등의 시리즈를 연출하며 여러 매체를 넘나드는 다재다능함과 창의적인 재능을 보여주고 있다.



“당신과 사랑을 나누고 싶어 꿈이 아니라 진짜로”

페이스리스

Faithless

2025 / 컬러 / 265분 / 6부작 시리즈

드라마 18

언어 스웨덴어
각본 잉마르 베리만
사라 욘센
출연 프리다 구스타브손
구스타브 린드
예스퍼 크리스텐센
제작 Miso Film Sveri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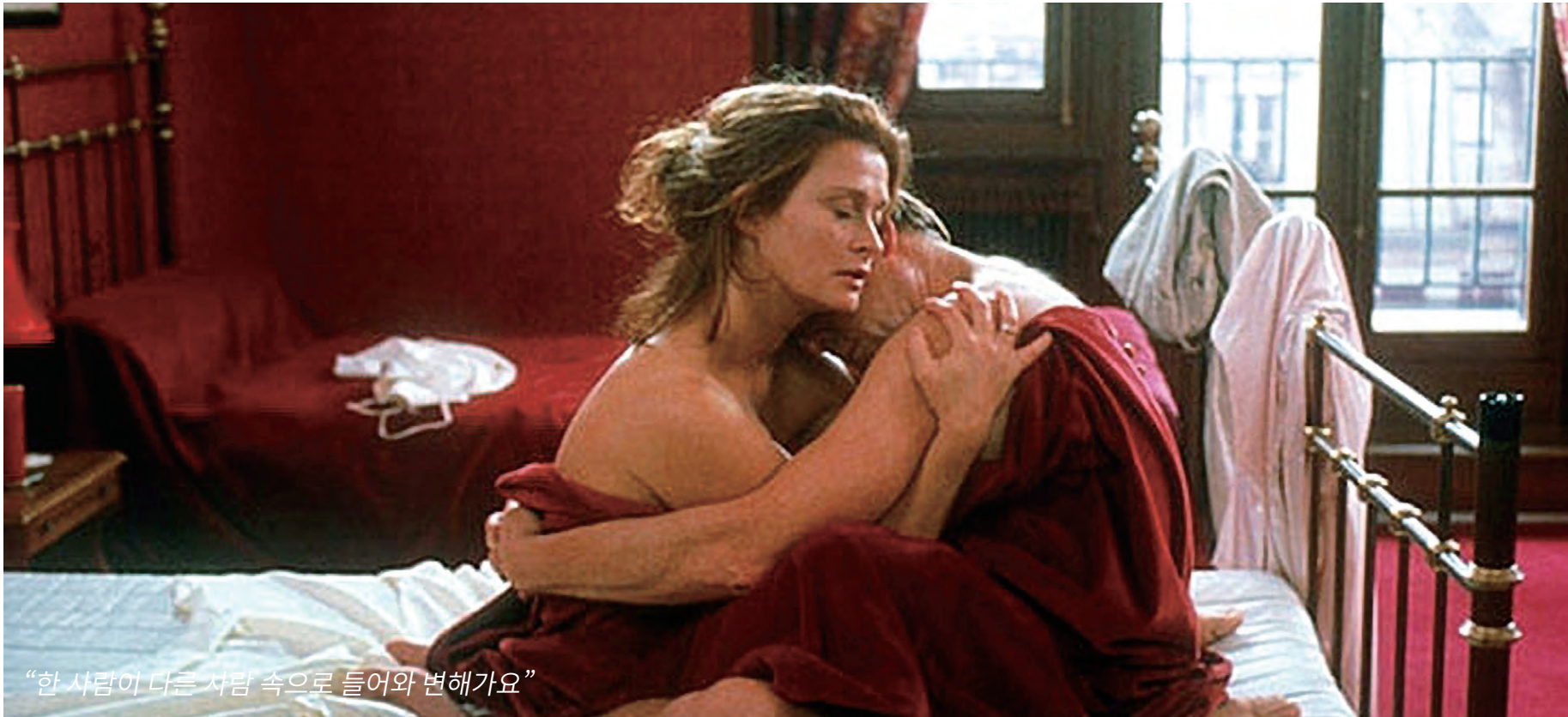
* 1~3부가 끝나고 10분의 중간 휴식시간이 있습니다.

차가운 시선과 정제된 미장센으로 인간의 내면을 해부해온 토마스 알프레드손 감독은 〈페이스리스〉를 통해 사랑과 배신의 기억을 스릴러처럼 풀어낸다. 새로운 작품 제작을 앞둔 영화감독 다비드는 친구 마르쿠스 가족과 재회한다. 그러나 마르쿠스의 아내 마리안과 다비드는 서로를 향한 시선을 거두어들이지 못하며 위험한 상황을 이어간다. 영화는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며, 인물들의 감정이 서서히 균열되는 과정을 냉정하고도 섬세하게 포착한다. 관객은 진실과 자기기만 사이에서 흔들리는 인물들의 심리를 따라가게 된다. 알프레드손 특유의 절제된 연출은 감정의 폭발 대신 침묵 속의 긴장으로 관객을 압도한다.



감독 토마스 알프레드손

토마스 알프레드손은 스웨덴 출신의 영화감독이다. 그의 연출작으로는 〈렛 미 인〉(2008)과 〈팅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2011)등이 있다. 〈페이스리스〉(2024)는 그의 최신작으로 2000년에 발표된 리브 울만 감독, 잉마르 베리만 각본의 영화 〈트로로사〉의 리메이크작이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 속으로 들어와 변해가요”

트로로사

Trolösa

2000 / 컬러 / 154분

드라마 **15**

언어 스웨덴어
각본 잉마르 베리만
출연 레나 앤드레
크리스테르 헨릭손
토마스 한존
제작 First Look

감정의 깊이를 탐구하는 리브 올만 감독은 〈트로로사〉를 통해 사랑, 후회, 용서의 복잡한 감정을 시적인 언어와 섬세한 연기로 풀어낸다. 다비드는 오랜 시간 묻혀 있던 사랑의 기억을 품은 채, 친구의 아내였던 마리안과 다시 마주한다. 그녀와의 관계는 한때 금기였지만, 그 감정은 여전히 생생하다. 올만 감독은 인물들의 내면을 고통스럽게 들여다보며, 마리안과 마르쿠스의 결혼생활, 딸 이사벨의 혼란스러운 감정, 그리고 다비드와의 갈등을 통해 세대와 관계를 넘나드는 감정의 흐름을 그려낸다. 이 작품은 사랑의 흔적이 남긴 상처를 마주하는 용기와, 그 속에서 피어나는 인간적인 연민을 담아낸다.



감독 리브 올만

리브 올만은 노르웨이 출신의 배우이자 영화 감독으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유럽 여배우 중 한 명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올만은 영화 감독 잉마르 베리만과 수많은 작업을 함께했다.



“세상을 바꾸려면 우리 여자들이 나서야 해”

더 걸즈

The Girls

1968 / 흑백 / 100분

코미디, 드라마 12

언어 스웨덴어
각본 마이 제털링, 다비드 휴즈
아리스토파네스
출연 비비 안데르손
해리엇 안데르손
군넬 린드블롬
제작 Sandrews

세 명의 스웨덴 연극 배우들이 고전 희극 ‘리시스트라타’를 무대에 올리며 자신의 삶 대해 깊이 사유하게 된다. 각기 다른 시선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고전의 현재적 의미, 코믹과 진지함 사이를 넘나들며, 여성의 목소리와 저항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한다. 이 작품은 인물들의 혼란과 성장을 작품 속 작품, 현실과 상상이 뒤섞이는 연출로 표현하여 극적인 재미를 보여준다.



감독 마이 제털링

마이 제털링은 1925년 스웨덴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잠시 호주에서 보냈다. 감독 겸 배우로 잘 알려진 그녀는 스톡홀름 레퍼토리 극단에서 훈련을 받았으며, 10대 시절부터 전쟁 시대 영화에 출연하였다. 1941년 영화 <라세 마야>로 데뷔한 후, 잉마르 베리만 각본의 암울한 분위기의 영화 <고뇌>(1944)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베리만 감독은 그녀를 위해 1948년 <어둠 속의 음악>을 연출했다.



함마르셀드: 평화를 위한 여정

Hammarskjöld

2023 / 컬러 / 114분
실존인물, 역사, 드라마 12

언어 스웨덴어
각본 페르 플라이
 울프 뢰베리
출연 미카엘 페르스브란트
 프랜시스 솔러
제작 Memento Film

1961년, 유엔 사무총장 다그 함마르셀드는 냉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혼란에 빠진 콩고를 통합하려는 불가능한 임무에 뛰어들다. 뜻밖의 재회로 과거를 돌아보게 된 그는, 사명과 개인적 갈망 사이에서 깊은 내적 갈등을 겪는다. 콩고에서는 그의 평화 계획이 무력 충돌과 정치적 음모로 뒤엉키며, 그는 점점 고립되어간다. 외부의 적과 내면의 혼란 속에서 그는 자신의 선택을 되짚으며 마지막 희망을 품는다. 그리고 9월, 그는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여정을 시작한다.



감독 페르 플라이

페르 플라이는 다수의 상을 수상한 유명한 감독이자 시나리오 작가다. 플라이의 장편 영화 〈벤치〉(2000)는 보딜상과 로버트상 최우수 감독상 및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했다. 플라이는 〈인헤이탄스〉(2003), 〈맨슬로터〉(2005), 〈모니카 Z〉(2013) 등 국제적으로 호평받은 영화를 연출하며 장편 영화 〈백스테빙 포 비기너스〉(2018)의 각본과 감독을 맡았다.



우리의 마지막 여행

The Last Journey

2024 / 컬러 / 95분

가족, 드라마 **12**

언어 스웨덴어
각본 필립 함마르
프레드릭 비킹슨
출연 필립 함마르
라스 함마르
프레드릭 비킹슨
제작 Nexiko

삶의 의욕을 잃은 아버지를 위해, 영화감독 필립 함마르는 어린 시절 매년 여름 함께 떠났던 프랑스 여행길을 다시 밟는다. 절친이자 공동 감독인 프레드릭 비킹슨과 함께한 이번 깜짝 로드트립은, 아버지에게 인생의 가장 빛났던 순간들을 되살려줄 마지막 희망이다. <우리의 마지막 여행>은 죽음을 앞둔 부모를 바라보는 아들의 시선을 통해, 누구나 맞이하게 될 이별과 그 너머의 삶을 진솔하게 탐색한다.



Fredrik Wikingsson

Filip Hammar

감독 필립 함마르, 프레드릭 비킹슨

필립과 프레드릭으로 알려진 이 듀오는 스웨덴의 작가, 텔레비전 진행자, 저널리스트다. 두 사람은 지적인 유머와 틀에 얽매이지 않은 저널리즘으로 유명하다. 필립 함마르는 고등학교 교사였던 라스와 티나 함마르의 아들로 자전적 이야기인 <우리의 마지막 여행>을 연출했다. 프레드릭 비킹슨은 TV 진행자, 팟캐스터, 영화 감독, 작가로, 오랜 창작 파트너인 필립과 함께 이번 다큐멘터리를 작업했다.



“당신처럼 용감한 사람은 세상에 또 없을 거예요”

스웨덴 토피도

The Swedish Torpedo

2024 / 컬러 / 120분

실존인물, 역사, 드라마 15

언어 스웨덴어
각본 프리다 캠프
마리에타 폰 하우스볼프 폰 바움가튼
출연 요세핀 넬덴
미켈 뵈 포스고르드
제작 Momento Film

1939년 여름, 제2차 세계대전의 그림자가 드리운 가운데, 30세의 싱글맘 살리 바우에르는 스칸디나비아 최초로 영국 해협 횡단에 도전하기로 결심한다. 사랑하는 아들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위험과 사회와 가족의 압박 속에서도, 그녀는 용기있게 관습에 저항하며 자신의 꿈을 쫓는다.



감독 프리다 캠프

프리다 캠프는 강렬한 서사와 깊이있는 시각적 감성으로 유명한 스웨덴 감독이자 시나리오 작가다. 스톡홀름 연극예술 아카데미 졸업 후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러 TV 작품, 다큐멘터리, 단편 영화를 포함한 놀라운 작품들을 만들었다. 그녀의 장편 데뷔작인 <노크>는 2021년 선댄스 영화제 미드나잇 섹션에서 최초 상영되었으며, 제11회 스웨덴영화제 및 여러 국제 영화제에서 주목받았다.



“영혼의 목소리가 자신을 인도했다고 하죠.”

힐마

Hilma

2022 / 컬러 / 119분

실존인물, 드라마 12

언어 스웨덴어
각본 라세 할스트룀
출연 토라 할스트룀
레나 올린
탐 와라시하
아담 룬드그렌
제작 ViaPlay Studios

오스카 후보에 이름을 올렸던 라세 할스트룀이 연출한 이 작품은, 모든 규칙이 남성성에 의해 정해졌던 시대에 인간과 우주에 대한 진실을 향한 흔들림 없는 탐구를 그린다. 〈힐마〉는 독창적이고 영적인 작품 세계로 오랫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힐마 아프 클린트(1862-1944)’의 신비로운 삶을 조명한다. 오늘날 그녀는 서구 최초의 추상화가 중 한 명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남성 중심의 예술계 속에서 이론 그 성취는 더욱 빛난다. 지난 7월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 부산현대미술관에서 열린 《힐마 아프 클린트: 적절한 소환》 전시와 맞물려, 〈힐마〉는 그녀의 예술과 철학을 스크린 위에서 다시금 되새기며 깊은 울림을 전한다.



감독 라세 할스트룀

시나리오 작가 겸 감독 라세 할스트룀은 1946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태어났다. 그의 첫 번째 장편 영화 〈A Lover and His Lass〉는 1975년 최초 공개되었고, 〈개 같은 내 인생〉(1985)으로 오스카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하며 국제적 성공을 거두었다. 80년대 말부터 할스트룀은 미국에서 활동하며 〈사랑의 율타리〉(1991), 〈길버트 그레이프〉(1993), 〈줄리아 로버츠의 사랑게임〉(1995), 〈사이드 하우스〉(1999), 〈초콜릿〉(2000) 등 세계적인 찬사를 받은 영화를 연출했다.

제 14회
스웨덴영화제

상영 시간표

자막 본 영화제의 모든 상영작은 스웨덴어를 기본 언어로 상영되며, 한국어 자막이 함께 제공됩니다.

등급 **G** 전체관람가
12 12세 관람가
15 15세이상 관람가
18 18세이상 관람가

인터뷰영상 감독 영상인터뷰

TALK 영화인과 함께하는 시네마토크

The 14th
SWEDISH FILM FESTIVAL

14

서울
SEOUL

아트하우스 모모
10월 28일(화) – 11월 3일(월)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10/28 화(Tue)		13:30 개막식	14:00 15 개막작 노바와 엘리스 TALK	19:00 15 스웨덴 토피도 인터뷰영상
10/29 수(Wed)	11:00 12 힐마	14:00 12 더 걸즈	16:30 12 함마르셀드: 평화를 위한 여정	19:00 15 개막작 노바와 엘리스 TALK
10/30 목(Thu)	11:00 12 우리의 마지막 여행	14:00 15 스웨덴 토피도 인터뷰영상	17:00 18 페이스리스	
10/31 금(Fri)	11:00 15 개막작 노바와 엘리스 인터뷰영상	14:00 12 함마르셀드: 평화를 위한 여정	16:30 12 힐마	19:30 12 더 걸즈
11/1 토(Sat)	10:30 12 우리의 마지막 여행	12:30 18 페이스리스		17:30 15 트로로사 TALK
11/2 일(Sun)	11:00 12 더 걸즈	13:30 15 개막작 노바와 엘리스 인터뷰영상	16:00 15 스웨덴 토피도 인터뷰영상	19:00 12 함마르셀드: 평화를 위한 여정
11/3 월(Mon)	11:00 15 스웨덴 토피도 인터뷰영상	14:00 12 힐마	17:00 12 우리의 마지막 여행	19:00 15 트로로사

- 티켓 예매 : 10/17(금) 오전 11시부터 극장 매표소 및 아트하우스 모모 홈페이지, 디트릭스 웹/앱
- 티켓 가격 : 1,000원

부산
BUSAN

영화의전당
10월 30일(목) – 11월 4일(화)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10/30 목(Thu)				19:00 개막식	19:30 15 개막작 노바와 엘리스
10/31 금(Fri)	10:00 15 스웨덴 토피도 인터뷰영상	13:00 12 함마르셀드: 평화를 위한 여정	15:30 12 힐마	18:00 15 개막작 노바와 엘리스 TALK	
11/1 토(Sat)	10:00 12 우리의 마지막 여행	12:00 12 힐마	14:20 15 개막작 노바와 엘리스 TALK	17:30 12 더 걸즈	19:30 12 함마르셀드: 평화를 위한 여정
11/2 일(Sun)	9:00 15 스웨덴 토피도 인터뷰영상	12:00 15 트로로사	15:00 18 페이스리스		20:00 12 더 걸즈
11/3 월(Mon)	9:30 12 더 걸즈	11:40 12 힐마	14:10 12 우리의 마지막 여행	16:10 15 스웨덴 토피도 인터뷰영상	19:00 15 개막작 노바와 엘리스 인터뷰영상
11/4 화(Tue)	9:30 12 우리의 마지막 여행	11:30 12 함마르셀드: 평화를 위한 여정	13:50 15 트로로사	16:50 18 페이스리스	

- 온라인 예매 : 10/20(월) 오전 9시부터 영화의전당 홈페이지 및 앱
- 티켓 가격 : 1,000원

인천
INCHEON

영화공간주안
11월 6일(목) – 11월 9일(일)

3관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11/6 목(Thu)	15:00 개막식	16:00 15 개막작 노바와 엘리스 인터뷰영상	18:30 12 더 걸즈	20:20 12 우리의 마지막 여행
11/7 금(Fri)	13:20 15 트로로사	16:20 18 페이스리스		
11/8 토(Sat)	13:10 12 힐마	15:25 12 더 걸즈	17:20 15 트로로사	20:05 12 함마르셀드: 평화를 위한 여정
11/9 일(Sun)	13:20 18 페이스리스		18:20 15 트로로사	

4관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11/6 목(Thu)			16:20 12 함마르셀드: 평화를 위한 여정	18:30 15 스웨덴 토피도 인터뷰영상
11/7 금(Fri)	13:10 15 스웨덴 토피도 인터뷰영상	16:00 12 힐마	18:15 12 더 걸즈 TALK	
11/8 토(Sat)	13:30 15 개막작 노바와 엘리스 TALK		17:20 12 우리의 마지막 여행	19:10 15 스웨덴 토피도 인터뷰영상
11/9 일(Sun)	13:10 12 함마르셀드: 평화를 위한 여정	15:20 12 더 걸즈	17:15 12 힐마	19:30 15 개막작 노바와 엘리스 인터뷰영상

- 상영시간표는 영화공간주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현장 발권 : 상영당일 영화공간주안 매표소(온라인 예매 불가)
- 티켓 가격 : 무료, 1인 최대 2매까지 발권

대구
DAEGU

CGV 대구아카데미
11월 7일(금) – 11월 9일(일)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11/7 금(Fri)		16:00 개막식	16:30 15 개막작 노바와 엘리스 인터뷰영상	
11/8 토(Sat)	10:00 15 스웨덴 토피도 인터뷰영상	14:00 12 더 걸즈	16:30 15 트로로사	19:30 18 페이스리스
11/9 일(Sun)	11:00 12 우리의 마지막 여행	14:00 12 함마르셀드: 평화를 위한 여정	16:30 12 힐마	19:30 15 개막작 노바와 엘리스 인터뷰영상

- 상영시간표 및 온라인 예매는 스웨덴영화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
- 티켓 가격 : 무료, 1인 최대 4매까지 발권

서울 아트하우스 모모
02-363-5333
www.arthousemomo.com

부산 영화의전당
051-780-6000
www.dureraum.org

인천 영화공간주안
032-427-6777
www.cinespacejuan.com

대구 CGV 대구아카데미
1544-1122
www.cgv.co.kr

주한스웨덴대사관
02-3703-3700
www.swedishfilmfestival.com

Instagram @SwedeninKorea

X @SwedeninKR

Facebook @SwedishEmbassyinSeoul

YouTube @SwedeninKorea

Blog blog.naver.com/swedishfilmfestival



2025 TEAM SWEDEN PARTNERS는 협업과 개방성, 그리고 솔루션 중심의 스웨덴식 접근 방식을 바탕으로 혁신과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총 19개 주한 스웨덴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14회 스웨덴영화제는 주한스웨덴대사관이 주최하고, 한국스웨덴문화예술협회 및 **2025 TEAM SWEDEN PARTNERS**와 함께 합니다.

#2025TeamSwedenPartners #BetterTogether